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天津現銀引渡問題 全面的解決在邇!

今月中旬日英佛間에覺書를交換乎

【東京電話同盟】크레기駐日英大使는 六日午前十時 外務省으로 谷次官을訪問하여 約一時間 會談을하고 正午辭去하엿는데 右會談에서는 일즉부터의 懸案인 天津問題解決의 覺書에關하야 字句修正을協議한것으로보인다 …

近近調印할覺書內容

【東京電話同盟】近近有田外相과 크레기 英 앙리佛 兩大使間에 天津問題解決에 關하여 交換될 覺書의內容은 …

一、英租界의 現銀 一千四百萬元으로부터 十萬磅(國元와 一…

一、十萬磅을 除한 左記現銀은 …

有田外相 演說眞意說明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

社說

殖産契增設

一

… 殖産契는 殖産契令에依해 組織되는 法人으로 …

二

三

…

物價咨申第一號 政府具體化에着手

【東京電話同盟】五月의 物價對策 …

相續稅의物納制度 調査會設置

【東京電話同盟】相續稅物納에關 …

民政黨一一會

強力한政治體制要望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의 昭和十一年初當選議員으로서 組織된 一一會는 六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서 …

白米四千五百俵

【○○六日發同盟】…

久原政友總裁 首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久原政友會總裁는 …

政友會中島派 新黨運動에協力決定

貯蓄獎勵委員 各地方에派遣

【東京電話同盟】…

웨이간線突破報道와 그날의獨佛大使館

獨總統布告를 伊紙大大的報道

프란도르戰線 獨軍의損害

佛軍前進部隊後退

獨、솜므河下流에攻擊을集注

【巴里六日發同盟】佛軍司令部發表 …

웨이간線은?

【巴里五日發同盟】…

佛軍戰況

【巴里五日發同盟】佛軍司令部發表

香港 一時閉鎖

【香港六日發同盟】香港英海軍當局은 六日午前七時 突然香港港을 閉鎖하엿다가 午前十時에再開하엿다

伊太利參戰切迫

萬般準備를進行

【巴里五日入江同盟特派員發】…

慘澹한北佛戰跡

英佛軍遺棄品이狼藉

【紐育五日發同盟】…

二週間以內에 英佛抗戰力粉碎

暴露된獨軍最初作戰計畫

히틀러總統

【倫敦五日發同盟】…

巴里攻略戰과併行 英本土砲擊開始?

獨、칼레等地에長距離砲裝置

【伯林五日發同盟】…

英空軍獨逸各地爆擊

【倫敦五日發同盟】…

이스탄불市民에 土政府撤退命令

【이스탄불五日發同盟】…

伊空軍司令官에 무치黨書記長轉任

英物資制限强化

【倫敦五日發同盟】…

獨空軍中佛空襲

【巴里五日發同盟】…

漢水掃蕩戰進捗

敵軍、荊門沙市方面으로潰走

【○○六日發同盟】漢水西岸南端인 橫山、大崎、長崎、襄毛、吉田、長谷川、村井、稀各部隊는 …

漢水遡航部隊 ○○地點에進出

【漢水○○艦上六日松尾、梅田同盟特派員發】…

荊門까지廿粁

【○○六日發同盟】…

軍艦「津輕」進水

【橫須賀電話同盟】…

又復重慶空襲

白市驛서敵機九機擊墜

【○○에서六日】…

御親拜時刻에 一齊伊勢大神宮遙拜

【東京電話同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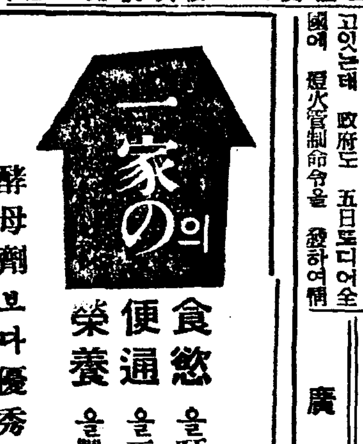
神武天皇聖跡 五個所를新定

【東京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 …

辭令

京城高等工業學校 …

廣告



日本勸業證券
推獎債券
●第九回貯蓄債券 仲値 四圓八五錢
●第十回貯蓄債券 仲値 九圓七〇錢
貸付割合引上
京城支局
鳥致院支局 電話一四六番

人一代의吉凶運勢를左右하는
誰にも出來る名前の付け方
改姓改名絕對參考書
國民書院日報係
特價八十錢

廣幅綿織物의統制 事實上實施는七月에

販賣停止在庫品證考

조선사람의 생활필수품이면서 나날이 상승일로까지도 배포조정을 수행코 도매상인 연합회원에게까지 통의 판매를 정지시키고 재고품 면직물(廣幅綿織物)의 배급통제 안하고 거우하여 조합원에게거나 오리면 들라도 칠월초순의 일은전부 유월분통제면포로 수게 는두보한바와가치 유월일일부터 누어을 전부 기라서통용비를하 것이므로 통제위원회에서는 면되엇다 전조선이 일제히 실시 하엿다 이 고인동이데 면포통제 위원회 포도매상에게 대하여 유월상순 상품제에 앞서서 각도에서는지 에서 배정한것을 통제면포가 일일 허가내서 현재도 많은편이

配給바들組合員은 겨우四百六十一名!

今月中旬부터 一般에풀린다

이상과가치 유월일일부터 면포(捲者)를 발견하엿스므로 어떠한 가를하게된다 연쇄중인면포의 도매는동지상태 전형을하여 유월분의 배급을바 또한 유월부터 배급하려던 로하는데 유일현재 경기도배급 을조합원은 사백륙십일명으로결 표는 아직준비가덜되어 십일게 조합의 움지김을보면 다음과갓 경이되엇다 그런데 아직연합회 나나누어 주게되엇는데 이가치 다 죽연합회원파의 취이경적을 와 실적이잇스면서도 이번에조 경기도를주로 각도에서도실실 기초로 조합원을 정리하엿는바 합원이못된 사람도잇스므로 이 시하게되어 이달중순부터 일반 육배여명중에서만흔 실격자(失格者)가 것은 칠월부터 배급을받도록주 의순에면포가풀려나올것이다

綿布小賣商에게 七大注意事項을傳達

違反者에게는二重嚴罰斷行

면포소매상에게 전표가 나누 어 집달도 며칠밧게 남지안코 는데 갑도 산업과에서는 배급 조합원에게 다음과가튼 일곱가 지 조목의 주의 사항을전달하 고 경제경찰과 협력하여 철저 한 취체를하는동시에 위반자에 게는 배급정지와 가격등통제령 위반에대한 처벌로 이중처벌을 하게되엇다

一、전표의 전매(轉賣)와 양도를 엄금한다
二、밀보는 절대로못한다
三、공정가격을 엄격히 지킬것
四、다른물건을겹겨서 팔지(抱合販賣)못한다
五、정실관게에 의한부당판매와 일반수요(需要者)자에대한매석(賣惜)을못한다
六、공영증권재료로 팔지못한다
七、물건이 다른도(道)로 흘러 가지못하게할것

"醫學知識을逆用"

岡本檢事는上告棄却을要求

【東京電話同盟】살인이냐? 상해치사이냐? 전국적으로큰『센세숀』을일으킨『지부스』만두사 건의 주인공인 여의사 광뢰국자(廣瀨菊子)는 지난번에대판(大阪)공소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중역팔년(미결구십일통산)에처하엿는데 전기국자는이에불복하고 상고하엿다 그리하여 그재일회상고공판이육일 오전열한시 이십오분에 대심원(大審院)형사제일부법정에서 구보전(久保田)재판장과 강본(岡本)검사와 농천(瀧川)오전(奧田)양변호사의 입회아래에서개정되엿다 방청석에는 전번에본 사건에 특별변호인으로서 여성옹호의 입장에서 변호하엿던의 외에 일본대학의학부 학생들이 만히모여들엇다 개정된 벽두에 일심으로부터 여태껏변호를하여 오던 원경도제대교수 농천(瀧川)변호인으로부터 상고한취지를다음과 가치 진술하엿다

율남(律男)이죽은원인은 국자의『지부스』만두때문이라기보다는 율남의체질이 허약하엿기때문이므로 국자의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수업다

이에대하여 강본검사는 상고 취지를 처음부터 반박하여 『지부스』균이 어디로보아서 위험성이업다는말이냐 사람을 구원하여야할 과학지식을 오히려사람을 죽이는데 역용한 것은 그죄를가단(糺彈)하지안 는면안된다 라고말하고 상고를기각할것을 요구하엿다

總督府關係官 移秧督勵要綱

중미계획으로 모내는것을 독려하고 잇거니와 려하기위하여 파견된 총독부관계관들은 농촌현지에서 다음과 가튼 요강으로써 시찰독려하기로되엇다

一、苗板生育及管理狀況
(가) 水苗板 生育의狀況、除草及除虫의狀況、追肥、灌水의狀況、用水枯渴한
(나) 陸苗板 發芽及生育、苗代의實施 除草及中耕、追肥、土穴의狀況、病虫害의 發生及防除狀況
二、苗의配給計畫及實施狀況
三、水稻植付實施
(가) 裏作麥의 適期刈取實施 計畫並實施狀況
(나) 麥刈取及植付勞力의配給調整計畫並配分狀況
(다) 植付用水源의 確保狀況
ㄱ、野井戶 河江溪流、伏流水의 利用狀況
ㄴ、灌漑水의配給計畫及實施狀況
(라) 本畓의耕耡狀況
ㄱ、耕耡程度와 其深耕度
ㄴ、畦畔塗及手畦의作製狀況
(마) 苗植付株數及 一株當 本數의適否
(바) 挿秧의深淺狀況
(사) 堆肥等自給肥料의搬出狀況
四、本畓植付進捗狀況
(가) 植付濟面積及程度
(나) 今後植付可能面積及程度
(다) 植付不能面積及 代用作
五、集合田及共同苗代의實施狀況
六、灌漑施設의 耕作者의 利用狀況
七、灌漑 水位의 狀況
八、共同作業의實施狀況

(寫眞은 昨日 昌慶苑에서)

◇……雨意를 담뿍실고 맴도는白雲……◇

國民服과清酒麥酒 最高販賣價格指定

八日告示後即日實施

육일총독부에서 열린제이십일회 물가위원회총회에서는 청년단복 경방단복등 조선산기제복과 요리점 음식점, 여관, 카페, 빠 등에서파는 청주와 맥주의공정가격을 결정하고 팔일관보로 고시하여 실시하기로 되엇는데 단복은 일본제보다 싸게결정되엇다 음식점에서는 량비싸고 경비단복은 칠십전 청주는 오십전전후로 결정될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한것으로 각도각도시별 가격은 이갈들로(순으로)다시 각도지사가 지정하기로 되어잇다

水豐"땜"에刻刻增水

水位四十七米突 (六日午後八時現在)

鴨江上流昌城은四十八米突

【平北支社特電】속보=압록강수풍『땜』은 육일 오전 아홉시에는 사십칠『메돌』칠십구『센치』에 달하엿고 정오에는 사십칠『메돌』팔십『센치』에 달하엿다 그런데 수풍『땜』상류 창성(昌城)지방은 수위(水位)가 더욱놉파 육일 오전 아홉시에는 사십칠『메돌』삼십팔『센치』이고 정오에는 사십칠『메돌』삼십구『센치』에 달하엿다

【平北支社特電】제삼보=압록강수풍땜부근은 유일오후에도 여전감수되지안코 정저분수위가 사십칠『메돌』팔십이『센치』 오후여섯시현재는 사십칠『메돌』팔십『센치』에달하엿다 창성(昌城)부근도 여전시현재에는 사십칠『메돌』사십팔『센치』에 달하엿고 이곳은 수위가 제일놉파 태천읍으로 수위가 아직도거이엇스나 만일의 경우를의하여 평북경찰부에서는 오늘도밤을새워가며 비상경계를 하기로되엇다

日本學術協會 城大에서開催

일본학술협회(日本學術協會)제십삼회대회가 오는팔월 이십구일부터 사흘동안 경성제국대학에서 열리게되엇다 동협회는자연과학관게 학자로서 조직된단체인데 대륙병참기지인 조선에서 황기이천육백년을 기하여열리게된것은 의의기픈일이다 사게의 학자가 전국으로부터 다수모여드는 기회를 타서 작기일정으로 공개강연회까지 열게되엇스며 그들은 견학단을조직하고 여러방면 논하 불국사(佛國寺) 경주(慶州) 금강산(金剛山) 평양(平壤) 등지를견학하게되엿다

▲八月二十六日釜山 ▲二十七日大邱 ▲二十八日京城 ▲九月二日平壤 ▲同日興南

"피스톨"盜難

大邱西田銃砲店에서

오일오후열한시쯤에 대구부원정이정목 서전총포화약점(西田銃砲火藥店)에서는『피스톨』한자루를 도둑마젓다 경북경찰부에서는 각처로 급히 통지하고 그범인을사방으로 찻는중이다

高工構內에出火

藥品倉庫一棟을燒失

유일오후열한시반에 시내동숭정 고등공업학교안에잇는 약품창고에서 불이나서 약품의자 전부태워버렷다 그창고는 목제평가로 건평은 스물한평이다 불이나자 즉시로 소방대가 출동하여 민속히활동한결과 그창고한채만태우고 연접한 학교건물은무사하엿다 그창고안에는 염산조산기타응용화학에소용되는 약품과기계등을 차하두엇스며 불이 난것으로 약품의자연발화로 불이낫것이듯하다 불은동대문 경찰서원과 학교직원들이 완전히 잡엇는데 화재가나게된 원인과 여러가지자세한사정을 조사하엿다 그리고 손해는 아직알수업스나 수만원에달할모양이다 경기도학무과장등 관게자도 급보를듯고 현장에달려왓다

▲六月七日(金曜日)陰五月二日 ▲干支一辛巳 ▲日出一午前五時一二分 ▲日南中一午後〇時三三分 ▲日入一午後七時五二分 ▲晝間一一四時四〇分 ▲月出一午前六時一九分 ▲月入一午後八時四六分 ▲滿潮仁川六時五分 後六時十分

佛教專門再出發

惠化專門으로改稱코 佛教科外에興亞科도新設

조선불교전문학교(朝鮮佛教專門學校)에서는 이번에 교명을 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라고 고치고 조선불교의 권위자이던 경성제대교수고교형(高橋亨)박사를 교장으로 마저 새출발을하게되엇다 그리고 종래의 불교과이외에 새로 흥아과(興亞科)라는 일본에서 처음인 새강좌를 신설하고 지나어를 주로하여 일본국사 기타일본정신에관한 과목과지나대륙에서 활약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교수하고 불교정신을 통하여 흥아의중견인물을 양성하랴는것으로 생도는 불교, 흥아양과에 각오십명씩 근일중에 모집하리라한다 교수는 경성제대를 위시하여 각전문학교교수들이 겸임하는외에 내지불교게의 권위자를 각조파(各派)에서 널리 임명하리라고한다

勞力調整의勞務課 九月頃에나實現!

우선京畿、慶南、咸北三道에

모자리는 노동력을 보충하여 생산력확충에 지장이업시하고저 내지로부터는 농자서부조선개발에소용되는 노동자의알선사무등 노무용된사무는 넘이갈수록잡다하여가고잇스므로 총독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직업소개소를 국영으로 이관하고 다시각 부, 군, 도에는 직업소개연락위원(職業紹介聯絡委員)을 위촉하야 제일선기관을 경비하기로 되엇거니와 노무관사무의 행정기구도 확충할필요를느끼고 총독부사회과안에잇는 노무계(勞務係)를 독립시켜 노무과로하는동시에 경기도 경남 함북의 세도에도 사회과에서 떼여 노무과를 두기로 결정하고 칠월일일부터 개설할예정이엇든바 관제개정안의 심의가 법제국의 사무관게로 느저저서 구월경에나 실현될모양이다

今日天氣 晴 曇

東亞競技大會 第二日

熱戰展開된國際戰 日本軍이快勝

協和會員一行 昨夜車로入京

조선을 구경하려온 내지협화회 사업담임자 이십명은 남조선지방의 시찰을마치고 육일밤열차로 경성에 들어와서 삼중여관(三中旅館)에서 쉬고잇다

(사진은 경성역에 나린일행)

百米豫選

【東京電話同盟】大會第二日의外苑競技場에서는 午後零時三十分부터 陸上競技를 擧行하엿는데 曇天의 公園이이슬고 午後二時부터 陸上競技百米豫選으로부터 始作하엿다

▲一〇〇米豫選
◇A組
1、코스만(比) 一一秒
2、湯淺直子(日) 一一、一
3、中野勝一(日) 一一、二
◇B組
1、吉岡隆德(日) 一〇、八
2、岡本三市(滿) 一〇、九
3、바레스타토스(比) 一一、一

四百米豫選에 比島二選手一着

【東京電話同盟】
▲女子走幅跳決勝 (귀디金鳳泉前日에西一米)
一、山內리에(中京女敎)五米七四
二、吉野도요(日體女敎)五、四四
三、山根美津子(松江高女) 五、一七
四、高橋미사오(新潟白浦小學校) 四、七二
五、橋節子(日本女學校)四、七〇
六、石原錦子(中京女) 四、六九

▲四百米豫選
A組
一、라베로(比) 五一秒三
二、佐藤勝三(日)五一、六
三、만다띠(比)五二、二
B組
一、로디나(比) 五〇、一
二、船田幸一(日)五〇、八
三、三木重(日)五二、一

▲二一〇米障碍
A組
一、川村達(日) 一五秒四
二、木南道孝(日)一六、五
三、柴田正木(滿)一六、八
B組
一、村上正(日) 一五、六
二、가리(比) 一六、一
三、加藤正美(滿)一七、二

▲女子百米決勝
一、吉野도요(日體女敎)一三秒一
二、田沼하즈에(大阪府一女)一三、三
三、越山富美子(福山女)一三、八
四、兼安이사子(郡山高女)
五、高見가노子(日本新)
六、瀨原澄子(長岡女)

▲三千米障碍物競走決勝
一、大澤龍夫(日大)九分三十四秒
二、高橋進(文理大)九、五八、六
三、永井尙茂(東大出)一〇、二

F
▲砲丸投決勝
四、岡本(東京AC)
五、吉田(宇都宮AC)
六、杉山(日大)

▲二百米豫選
A組
一、中野勝一(日)二二秒八
二、바레스타토스(比)二二、八
三、岩崎重雄(日)二二、八
B組
一、코스만(比)二二、二
二、湯淺直子(日)二二、四
三、루비나(比)二二、五
(以上本日豫選終了)

一、라벨(滿)二三米天
二、아만떼(比)二二、〇三
三、水島孝枚(日)二二、六一
四、高橋將吉(滿)二二、四六
五、梅田與一(日)二二、一二
六、吉田策一郞(日)二二、〇二

日本軍이先勝 對布哇野球戰

【東京電話同盟】東亞大會野球日本對布哇戰은 六日午後零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天知、角田、本郷、西村四氏審判、布哇先攻으로 開始、結局四A對三으로日本이 先勝하엿다 (時間二時三十五分)

布哇	1	0	0	0	0	0	2	0	0	3
日本	0	1	2	0	0	0	0	0	1	4A

東亞大會野球 滿洲軍이快勝

比島	0	2	0	0	0	0	0	0	0	2
滿洲	1	2	0	2	2	0	0	0	A	7A

比島軍이勝捷

比島 39 (19…20 23…11) 34 滿洲

中村高女優勝

【東京電話同盟】排球競技第二日은 大日本體育協會主催全日本女子中等學校排球選手權大會에서 ... 中村高女(福岡) 21…21 18…14 (...)

自轉車日滿對抗戰 第一日日本이優勝

【東京電話同盟】東亞大會自轉車競技第一回日滿對抗定期戰은 大日午後大阪鳴尾競輪場에서 擧行하바 遠來의 滿洲軍의 奮戰에도 不拘하고日本軍은 斷然一千米에도 滿洲軍은 一敗하고 五千米에 는 二位까지 占하여 四種目全部에 優勝하엿다

▲五百米
一、金藤顯(日)四〇秒四
二、二瓶(日)
三、小嶺(日)
▲一千米
一、빠돈바이에프(滿)一分三秒
二、끼도릿즈(滿)
三、內野(日)
▲二千米
一、金藤顯(日)三分五秒F
二、遊谷(日)
三、新井(日)
▲五千米
一、田村利男(日)七分三〇秒六
二、阪肪(日)七分三〇秒八
三、曹(日)七分三一秒F
▲一萬米
一、曹錦鎬(日)十五分四四秒二
二、田村
三、宮元
▲四千米團體追拔競走
一、日本 四分四十八秒F
二、滿洲

東亞大會籠球

日本70 (39…31 18…18) 34 中華

日本軍이勝利 對滿洲排球戰

【東京電話同盟】▲排球(日本對滿洲一回戰)

日本3 (25…21 21…21 23…15 15…23) 1 滿洲

日本對比島庭球

▲複式 日本0……1比島
▲單式 日本2……0比島
鶴田(8…6 8…6)산체스

實業野球리ー그 殖銀軍이勝利

京城野球리ー그戰鐵道對殖銀의 二回戰은 三日午後四時四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勝井(球)中川 馬場、橋本(壘)四氏審判鐵道先攻 으로開始1A—0로 殖銀勝(時間一時十分)

殖銀	0	0	0	0	0	0	0	0	1A	1A
鐵道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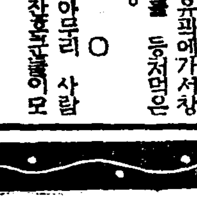
學生籠球리ー그 普專軍이勝利

普專81 (44…37 21…10) 31 中專
普專69 (29…40 28…12) 40 鑛專

學生蹴球리ー그 普專軍이勝利

普專 (2…2 2…0) 0 醫專

▲籠球=第二部籠球리ー그戰 第二日 法專對大學(四時半)普專對大學(五時半)城大고ー트
▲庭球=中等庭球리ー그戰 第十二日 東星對協實 協實對徽新 午後四時 韓成코ー트
▲野球=銀行團軟式野球리ー그戰 第九日 信託對商銀(午後五時) 獎忠壇



딱총

유괴에가서 창기를 등처먹은 아모리 사람 당하몰곤놈이모 여드는○○이기로다! 주간이령 농사는 천하지대본!농업보국 페일엉하고 올해는 일활밥머 두룹!

빈대는 이렇게 전멸한다

우리의피를막빠라먹는것보담가려워서한잠도못자여러병이둘게하는무서운빈대!(南京虫)자기만그러는것이아니라커여운어린애들과전가족이다—죽을지경이오방마다피투성이다그런대이빈대를완전히전멸시키며씨까지알까지멸종시키기로유명한경성『신성당』『빈대팔진미』가그것이다정말노참신기하다고다—말한다『팔진미』는연구에연구를거듭하고개량에개량을거듭하야한시라도빨니죽게되여잇다신의무물 진강제일 침식이 제일잠을 잘못자면 죽는다 문명인의방에는빈대가업다

갑슨 방이크면 오원이오、적으면 삼원이오、한간방이면、이원이다 며용십원자리도잇습니다 오원짜리가잘죽고힐신낫다 다른갑싼것은잘안죽으니주의하시오

약이매모자라서 하도큰니를넘니라 나다상큰약방이안 면업다점업니다 때가만으또방업슬 금곳주문하니지 오지방에문시 면즉접본업스 주문하시면포로 품으로선택신 여보내니다하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七丁目일큰백화상약 판매
賣發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一四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체증과속병엔 경오가제일

榮養胃腸強壯消化!

위다된이(力動原)력동원의관기든모체신 은(腸胃)장위의람사 니아지푸아 히과 다된이본근의병만고하약혀상항 면하약 이장 이인원는잇때을명생 여되이적체병속리아슴가 면두려버고다하 써울약적시일고싸시갑통보 배런그 오리하니아지욥려두지잇니되 맛울생일 로으객병고르모줄멜 울약상항면되이독중 로으성관습서 타만이일는치

경오—(KENO)는 약효에대하야 엿지져이아니고비위를보하고 위장의근본조직을 다시소생하고 소화를 잘시키는세가지작용이잇다 그 선은도세게에서유명한 약제가만히들고 특효한 신발명약제, 가합리적(合理的)으로 드리서리상적(理想的)효력 최고독한위장약이다 약가(價)도다른 약보다 만흐나 병이잘낫고몸을보하야 살이찌고 음식을 맛잇게먹게되니 돈갑지아니한 고명한 약입니다 약효가 대단히효과가잇습니다 수십년된체증이 한세에 효력을 보앗스니 삼십삼불사약이라는 감사상까지잇습니다 별별약을써도 신통치못하여고통하시는분은 꼭한제써보시오 꼭만족하리다 약갑은삼원고출엔오원 삼원 경오엔 이원경성서대문지기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병이즉시하면오원을쓰시오

무어니 무어니하여도、만성위장병에는 겡오—가 제일이라한다 죽을지경에 생명을 구제한사람이 몃만명이나된다

中部版

綿布秘密去來

節米策도가지가지
보리代身에"국수"로
府內廿五製麵業者들의製品을買收契約
開城食糧配給組의새方針

詐欺女祈禱師
溫陽署서取調中

金浦市內怪盜
月餘만에逮捕

丸仁、丸元兩代表
移管事務를引繼
三日鐵原에會同終了

全南道小作爭議
五個月間千百七十件
昨年同期보다百餘件減少

▲光州地方法院	四四〇件
▲同 長興支廳	三〇五件
▲同 木浦支廳	一五九件
▲同 順天支廳	一七二件

雨後에江邊散策 (平壤)

平南道의火田整理
昨年度까지에四割强이進捗

關係官民會合해
旱害對策을協議
甘屯堤貯水不足으로

某小學校訓導의말로
兒童들이學習帳買占
木浦經警張本人을嚴重說諭

駄菓料五百圓請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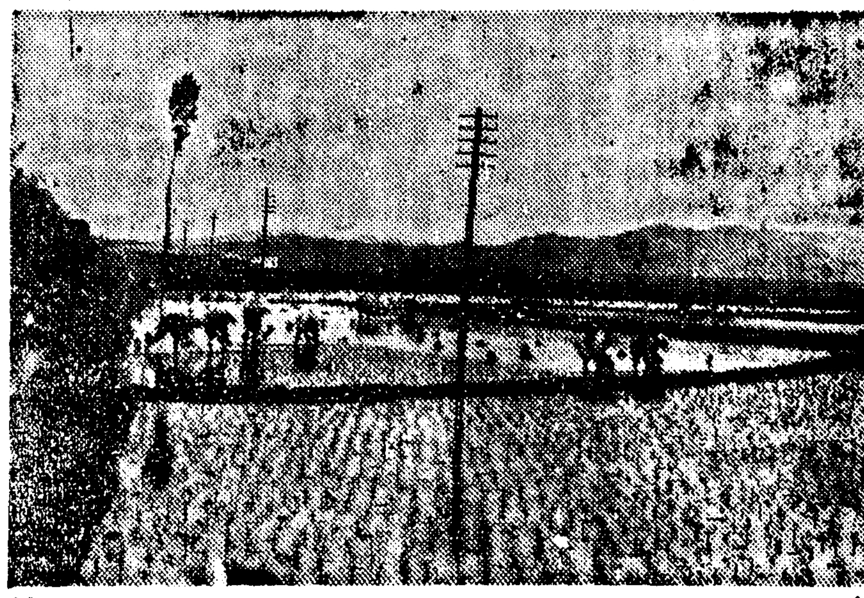
燒酒를사준다고
萬餘圓詐欺騙取
犯人은平壤大同署에서逮捕

江原道兩部長
全廳員에警告

咸南勞働會
第八回總會開催

各小學校長緊急召集
敎育方針을再檢討
連發하는放火事件을重視!
釜山府敎育當局에서

生金浦道路
不遠間竣工



福溪地方에移秧

(사진은 모심는농부들)

慶南道內痘疫禍
發生累計三百名
其中死亡五六名, 現患四三名

五月中忠南道漁況
水揚高十三萬餘圓
前年同期보다二萬圓增加

平康에千金雨
移秧에도洽足

砂糖은充分

慶南 小學校長會議
七月三、四兩日間釜山서開催

學園窃盜犯被逮

自身의貧困에不拘
三百餘戶稅代納
清州朴錫圭氏의壯擧

穗積殖産局長
地下資源開發視察

雄基野球大會盛況
優勝은雄基實業軍

利原郡下晩時雨로
大麥은半作도未免

遊仙商工會發會

優良納稅者表彰式
六月五日陽德面서

婦人科諸疾患の新発明療法

子宝で家庭円満

全快者の多い婦人科薬

新製 美神丸

日本全國― 世界의끗까지大好評!

本舗 富内善進堂

强性强精藥

早漏 淋疾梅毒藥

無効返金 五積六聚

商報進呈

간질 문둥病

滿蒙特產物商會

朝光·少年·絕版!

ハリブマルト HALIBUMALT

三浦外科 三浦民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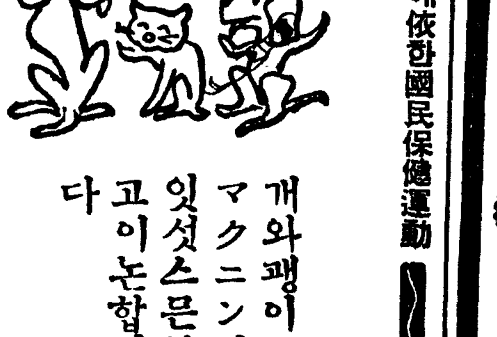
入院病室完備

各帝大病院常備藥

神経衰弱

アルゼンブルトーゼ

驅虫에依한國民保健運動



개와괭이도 마크닌이 잇섯스믄하고이논합니다

虫退治 マクニン

完成された新時代のポマード

金鶴ポマード

本舗 株式會社 野村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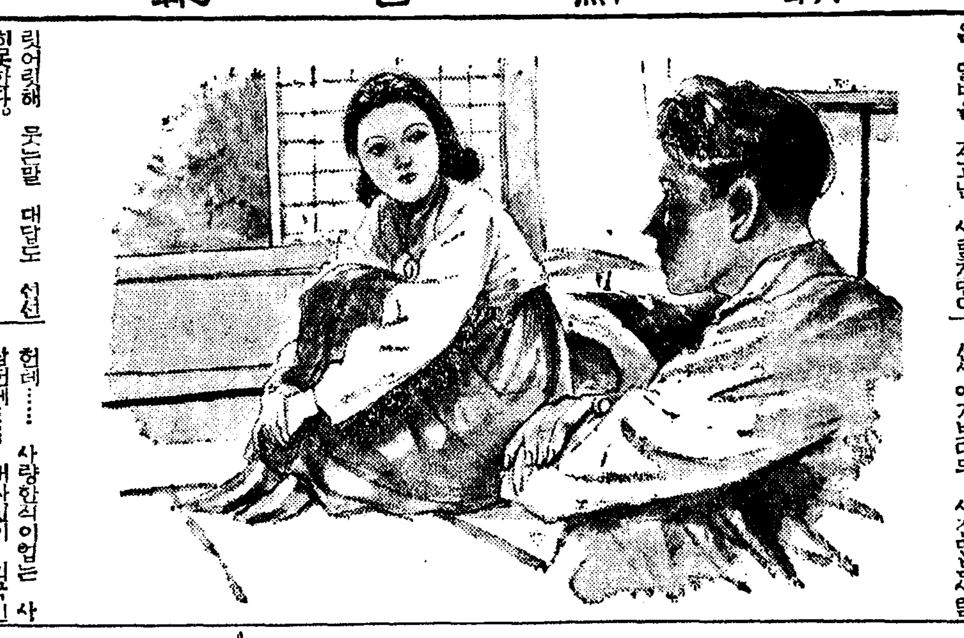
百補丸

百補丸會社

長篇小說

青春茂盛 (73)

李泰俊 作 鄭玄雄 畵



다시붙나비 十一

미국가는「가쓰라마루」가 떠나을떠나다는 실로 일년이되었다.

정선이오빠만이

「황비까지 나가 보내드려야할턴데 시험이 잇서 못나갑니다」

하고 다른날과 가치 학교로가버리엇고 정선과 치원은 자신들이 떠나는것처럼 식전부터서들덧다.

그러나 정작 떠날사람 은심은 조반을 먹는둥마는둥하더니 다시 자리로가서 누엇다.

「왜 고단해?」

「글세……」

은심은 그 맑던 눈알이 붉으스럼해지고 윤택하던 입술이 까시시말럿다. 정선이가 손을집어보더니

「이런! 애 뜨거운데……」

하고 체온기를 꺼내왓다.

체온은 통과 한 오부가량의 이상(異狀)이엿다. 그러나 은심은 열병을 겪고난 사람처럼어

「그러게!」

「일루오랏던데 양순이두 만나보구……그럼 요담배루 떠나기루 결정했다!」

하고 은심은 그제야자리에서 벌세게 일어나앉는다.

「너이사촌오빠가 어쩌루 가는줄알면?」

「오늘이구 넬이구 점을 치믄뭐잔어?」

정선이가 치원에게로 뛰어갓다.

「오늘 은심이 안 떠난대요」

하고 일러준다.

「왜요?」

「몰루 좀 고단허구……」

「아퍼요?」

「열은 좌끔이야요 좋은두 어태 안 차저본 사람이 잇구……아이처럼 집생각이 나는지 울엇답니다」

이런 대화를 옆방에서 듯는 은심은 전신이 한줌만치 쪼라드는것 갓다.

「내가 참 너머 단순했다! 원선생에게보다두 사진만본사람

릿어릿해 뭇는말 대답도 선선히못한다.

「어디가 아퍼 그래?」

「글세……」

「오늘 하필 떠날날 이러니 어디 가겟니?」

「글세……」

「의사 불러오라?」

「뭘……」

하더니 갑짜기 이불을 뒤집어쓴다.

「왜그러니?」

하고 정선이가 이불을 벗기려니까 부뜰고 놋치 안는다. 그예 벗기고보니 울고 잇다.

「이런! 어린애야?」

「……」

「집생각이 벌써 남 어떠캐?」

「……」

잠잣고 한참 울기만하더니 나중엔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하 우서버린다. 그러더니,

「나 요담배루 떠날테야」

하는것이다.

「요담배루? 언제게?」

「일수일뒤」

「아무커나한컴 난 더잇슬수록 조타」

「넌 방학이지 일수일만(?)슴?」

「그럼! 넌 미국를 떠나구 우린 조선을두가구 다 한날떠나잣구나!」

「너이 오배서넌 방학에나갈저 인 어떠커니?」

「그이 가울꺼정 혼자잇겟다구그래서」

「가울꺼정? 그리군?」

「몰라……」

「나 참, 불경와 영순이찾지두안헌지?」

헌데…… 사랑한식이엇는 사람헌데…… 내자식이 외국인되는것두 축복헌 고러가업시 사랑 결혼 생활 일생 이 이상 중대한게 뭔가? 이거야말로 내가정말 조코 내가정말 존경하는 남자헌데 리! 드돼야헐게 아닌가? 조-지 함이란 내가존경할수잇는 남자일가?」

은심은 밤새도록 한잠도자지못해 돌수업시 뻑뻑한눈으로 먼! 구름만 내다보앗다.

조곰 뒤에 치원이 도러섯다.

「오늘 안 떠난다구요?」

「안 떠나는게 아니라 못떠나요」

「대단히 아프니까? 눈서펀부석! 허섯군요?」

「………」

은심은 날카롭게 치원의얼굴을더듬엇다.

치원의 얼굴역시 꺼시시하고 눈이 부석부석하다.

부석부석한 눈끼리 잠간부드치드에 치원이가 가까히나서며 조용히 뭇는다.

「왜 못 떠나요?」

「거정허실거 업세요?」

「과히 아프지 안음 준비허시죠?」

「저 잇는게 귀찬으세요?」

「네?」

「………」

「언제든지 떠날것 아뇨?」

「………」

둘이는 이러듯 원망스런 눈들로 서로 쏘아보직은 일죽업섯다.

趣味 娛樂

阿娘의 "金玉均傳" 드디어今日(午後七時半)開幕

登場人員百五十名의豪華舞臺

今日부터四日間 本報讀者優待

특히 본보의 독자를 우대하는 의미에서 원작자 임선규(林仙圭)씨자신이 곳곳에가필을하여 그야말로걸작인『김옥균(金玉均)』전을 재차무대로 틀고나오는 극단 아랑(阿娘)의공연은 드디어 오늘저녁 일곱시반부터 시내 태평통부민관(府民館)에서 정렬과야심에찬 제일회의 첫막을 올리게되엇다.

『다이나믹』한 무대를 마침내 실현할것도 이번 부민관공연에 잇서서의 큰 수확이라아니할것이다.

공연은 오늘밤부터 오는십일까지 나흘동안 계속되나마 조막 십일막은 낮과 밤 두번으로 나누어 하게되엇스며 낮에는 열두시반부터 개막하게되엇다한다.

하여튼 아직도 우리의기억에새로운 역사상의 인물들을 그뿐아니 그들의 걸어간 기구한 운명의길을 여실히 무대에 재현시킬려는만큼 오늘밤부터의 개막될극단『아랑』의『김옥균전』전후편 대회는 각방면으로부터 벌써부터 크게주목되고잇는바 여기에 중요한 인물과배역을 소개하면다음과갓다.

(配役)

閔泳翊……梁白明
梁渭在……高聖峰
姜女……李蘭
福創……梁進
李祖淵……孟晩植
沈相薰……李夢
尹泰駿……尹一淳
韓圭稷……南膺民
洪英植……徐一星
穆麟德……高激
袁世凱……柳長安
李建英……梁白明
李圭完……金斗燦
尹泳觀……黃澈
申重模……梁進
林殷明……高聖峰
白樂善……尹一淳
朴應學……任士満
朴泳孝……孟晩植
竹添……柳長安
兪氏……文貞福
瓊……嚴美花

阿娘「金玉均」讀者優待券(一枚一人)

▲時日……6月7·8·9·10(四日間) 晝十二時半부터 夜七時半부터
▲場所……府民館
▲劇本……林仙圭作「金玉均」(六幕九場)
▲注意……此券持參者에 限하여 入場料 一圓을 七十錢으로割引함

歷史物과 脚色

―充分한考證이잇기를―

▼…일년전에 시내에 잇는 어떤 두 극단에서 역사극을 그것도 가튼『김옥균전(金玉均傳)』을가지고 한동안 각이변으로 흥미를 어르키엇든이잇다.

▼…관객된 사람으로서는 어떤 기회를 타서 두극단의 그 적합 상연을 알수잇섯스니까 우선기뻣고 그뿐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는 극작가나 배우의 각각 가지바 독특한 역사에 대한 해석과 연기를 비교해볼수잇게 되엇스니까 은근히속으로 기대하엿든것이다. 그것은 그럴만하엿다.

▼…그리고 결과에잇서서는 파연두고의『김옥균』을 정부보고난 일반은지하고들 직하여 거중을 모르는바 은 재미잇는곳과 재미업는 곳을 명확히 구별하여 노흣것이엿다. 그뿐아니라 두 편의 작가를 그들의 역량을가리어 서서비교를 논하기에 주저치안코 우리 하기에 주저치안코 솔직히 결론지안흔 면저은 배우와 배우의 어불을 내걸고 그들의 연기를 전주어 평을 하기에 시간을 얼마던지 낭비하엿던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너더한 시간을 기지고 이것을 냉정히 생각하여보면 이러한 두편의 무대우에 나타난 연극적 차이는 용당 잇서야할것이고 작가의 붓도 용당 이러케판이한 각도를 묘파해야만 정당, 그것은 물논 문제가아니다.

▼…문제는 어째서 한편의 그것은 재미잇고 한편의 김옥균은 재미업섯느냐 하는데 잇다. 나는 이것을 먼저 직접 배우와 작가 그외의 모든 부문의 기술기와 접도가를 직접 배우에

▼…그러나 그얼마어 세 롤 다르다는것과 재미가업다는것과는 근본 성질부터 도 모르다. 예 극작가 의 다른것이다. 열통 습관 달라도 좃타. 가튼『김옥균전』을 그리면서도 두편의 그 경도 엄청나게 달라도 조 나고―.

▲…그러나, 물론 그러한 정도 엇지안지만, 그보다도 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 은 극장경영주의 책임을물 흘려고싶다. 누구는 물론지 도 모른다. 예 극작가 의 광고제지, 경영자의 책임이 그들 경영자를 책임 더크 고 더 만흥을 이 어찌하 랑 만약 그들이 선선이에 살을 세워가지고 이곳작가 측에서 스스도 낫을붉여가 며 얼마씨의 애걸한듯 청 구하기전에 재료와 참고를 파 또는 고서와 연구서적 을 수집하고 구입할수잇는 정도 벽면 배우한 계흥 하여 주엇다면 오늘날에서 이야기는 다시 다르듯이올 전개되엿스리라고 나는 굿 거밋는다.

▲…두편의 선전을 극소 터ー를 보더라도 한편에 는 고증(考證)한 사람의이 름이 기록되어잇고, 한편에 는 업섯다. 벌써 이것하나만 보 한편의 작가는『헨드릭』을 지고 울한 어기는것이된다. 현대극이든 역 잇서서도 그러해야되겟지만 사극이 만약그것이 역사극인 경우 에는 그만한 비용은 극단 경영자는 우선 작가를위해서도 에끼지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기회에 깨다라야 한다.

南林

金…素…英…孃

★…高映에專屬

조영(朝映)으로 갓는나또는 동경(東京)으로가서 무용을배우느니 하고 여러가지소문을 퍼든리던 여배우 김소영(金素英)양은 다시 이연기로고영(高映)으로 돌아가 전속게약을맺고 곳제작을개시하려고방금준비중에잇다한다.

黃澈君이扮裝한……金……玉……均……(阿娘)

壯士의恨 ②

度秋崗

여러사람들은 한참동안정신들일코 운두커니들 서서 쌀섬을 노리처들고 어정어정 거러가는 점돌이를 바라보고잇다가 한사람이

『여보게 순길이 자네 어찌하라나 쌀두섬을 영영뺏기고보면 그걸 무얼로 채워놓라나 이사람 공연스레 쓸데업는말을 해노코……』

『아― 그녀석이 사람인가 몰롱이는엔가니 크구면 쌀두섬을 번적들고 가다니 야 원이게 말인가 그런데 갑돌네 저걸어쩌나 그냥두면 영영 재집으로 가지고 갈작정인데 이것 큰일아닌가……』

『여보게들 잔말말고 어서 쪼차가서 빼서오게 상납할라기는쌀을 한톨이라도 건드려보게 자네들뿐인가 다러날테니 자네들 목아지가 괜스레 우리까지 큰 탈이지……』

이처럼 서로 지꺼리는동에 순길이란 사람이 더욱 접이나서

『여보게 갑돌네 우리들이 가서 빼서오세 공연히 실업는 말을 해네 어서 가세……』

순길이가 어처럼 갑돌이란 사람을 끌고 점돌의 뒤를 쫓처가서

『이애 점돌아 너 상납미 쌀을 가저가면 어쩔테냐 이리내라 어서……』

쌀두섬을 번쩍들고 훌쩍 몰아다보며 점돌이는 벙그레 우스면서

『무어요 상납미를 누가어쨋단말이요 이쌀은 아저씨네가 날더러가저가래지 내가 그냥가저오는거요……』

딴은 생각해볼수록 점돌이의 말이 그른말이 아니다 실업시 한말이고 무엇이고 저이들이 점돌이더러이 쌀섬을 들어올리기만하면가저가라고 분명히 말을 하엿다.

그러나 만일에 아쌀두섬을 영 뺏기고보면 그 뒤두섬은대신 채워노하야하지그것을 못한다면 그야말로목아지가 다러날것은 정해논일이다.

그러면 이 점돌이에게무슨지술 한든지 그쌀 두섬을 도로 내여노토록 하는수 밧게 업서서

『이애 점돌아 우리가 실업시 한말이지 이쌀이 상납올려가는쌀인데 우리가어쩌라구 이것을 네게 주단말이냐 그리말고 우리를살려다우……』

『아, 이게무슨말이요 내가 아저씨네를 어떠케햇소 살려달라는게 무어요……』

『이애 점돌아 글세 그쌀을네가 영영안내노코면 우리가상납미 한섬이라도 축을내게되니 그러면 우리는 주는셈으로 그쌀을도루 지안느냐 그럼 우리를 살려라는말이야 이애 점돌아그러치안호냐……』

『글세말이요 이쌀을 누가 달라기를 햇소 아저씨네가 날더러가저가래지……』

그리게말이다 우리가 괜스레 실업는 말을햇구나. 그만두고어서 이리내라 다우리가잘못이다 우용돌아……

이러케 두사람은 점돌이에게 봇잘꾸걸하면서 그쌀두섬을 도로내라커니 점돌이는 안된다커니 한참동안승강을 하는데점돌이의 어른 용이가 바지게에 고기를잔뜩잡어 짊머지고 오는길에 이광경을보고 눈이휘둥그래지며

『아 점돌아 너 이게원일이냐 순길이자네들은 어쩐일인가 그 쌀섬은 왼 것이냐……』

『아니요 아버지 저 아저씨네가 이걸날더러 가저가랫다우……』

『그게 무슨소리냐 가저가라다니 쌀두섬을 공연히가저가래단말이야……』

이때에 두 사람은 용이가 오는것이 하늘만 시퍼서 허리를 굽실하며

『형님이시우. 오늘 고기만히잡엇구려. 그런데 저 다름게 아니라 점돌이가 하도 힘이 세길래 실업시 저쌀섬을 들어보래구려. 그랫더니 저러케 두섬을 한꺼번에 번쩍들고 왓소. 참대단히 장사하나 생겻소. 하참 큰장사야……』

이말을 듯고 용이란 사람은 바지게를 내려노코 회한숨을 내여쉬더니 점돌이가들고잇는 쌀섬을 두손으로잡으며

『이애 이리 내려노하라 그 무거운것을 왜들고잇니 그리고 이쌀이 상납할려가는 거다. 큰일날라다구 그리는구나. 자 어서들 가지고가게 에 참 공연한 작난들이야 큰일 날려구, 그게 무슨짓들이나 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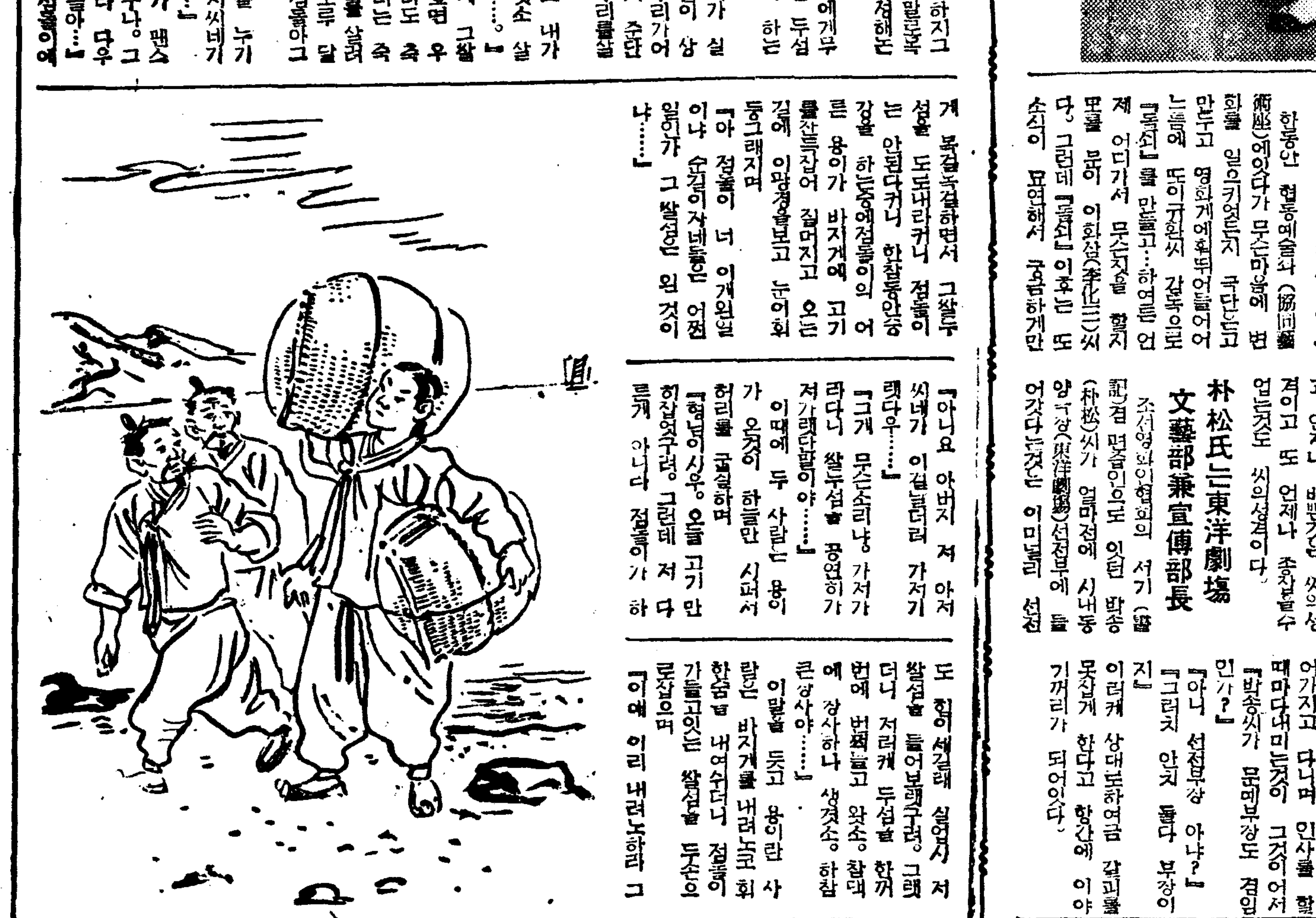
용이는 점돌이가 들고잇는 쌀섬을 잡아다리어 땅에 내려노케하고 순길과 갑돌 두사람더러 가저가라고 말하엿다. 점돌이는 제어른이 하는 말에는 어찌할수업는듯 두 아모말도 업시 쌀섬은 세끼술를 들려서 한섬씩 어깨에들러메며

『형님 고맙소다……』

한마디 인사를 하고는그만 나는가루 가버렷다. 용이는 고기지개를 다시지고 집으로 가면서

『점돌아 집으로 가자 그런 작난말고 너 힘이 상하라고 떠도리대면 네가네 목숨을 온전히지닐려나 어리것이 철이업서도 분수가 잇지……』

아까부터 이광경을 물그럼이 바라보고 섯든 한점잔흔 한량 한사람이잇섯다. (계속)



演劇映畫

不可思議의李化三氏

한동안 협동예술좌(協同藝術座)에잇다가 무슨마음에 변화를 일으켯는지 극단는 그만두고 영화계에뛰어들어어느틈에 또이규환씨 감독으로『국산』를 만들고……하여든 언제 어디가서 무슨짓을 할지 모를 분이 이화삼(李化三)씨다. 그런데『국산』이후는 또 소식이 묘연해서 궁금하게만 들더니 요즘에는 새로이결성된 조선무대(朝鮮舞臺)에 나타나서 배우겸 선전부장겸 교육부장겸 여러가지일을 보다고 언제나 바쁜것은 씨의성격이고 또 언제나 총찬을수업는것도 씨의성격이다.

朴松氏는東洋劇場文藝部兼宣傳部長

조선영화인협회의 서기(書記)겸 편집인으로 잇던 박송(朴松)씨가 얼마전에 시내동양극장(東洋劇場)선전부에 들어갓다는것은 이미널리 선전되어 잘아는바이지만 씨는 명함에다가 문예부장겸선전부장(文藝部兼宣傳部長)이라고 그다지 적지도 안흔듯하지만 어가지고 다니며 인사를 할때마다내미는것이 그것이어서

『박송씨가 문예부장도 겸임인가?』

『아니 선전부장 아냐?』

『그러치 안지 둘다 부장이진』

이러케 상대로하여금 갈피를 못잡게 한다고 항간에 이야기꺼리가 되어잇다.

海外消息

戰時下「런던」異聞

『런던』(倫敦)에 동양의 대공습에 하도 면이 쉬어보지못하고 몰고오는『런던』부인의 심리는 의상의 유행에 가장 잘 나타나서 동하편저에 적당한 복장가운것이 유행하엿든바 이번에는 낮에 입기위한 미채(迷彩)복의 기 대유행을 하고잇다.

×…×

죽 원 바탕에는 갈색이나 푸른 빗치나 모양에는 달크나 장갑자부자기든『테자인』을하고 잇스므로 가까이 볼것근면 무엇 착한해보이나 멀리 떼노코볼것 가트면『캄프라ー쥬』용이 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곳에서는『레스트란』이나『카페ー』의『써ー비쓰』는 의러여급이하니까 별로 신기할것이아니지만 본지남자가 이런일을 도마타 하던『런던』인에도 불구하고 남자라 남자는 모두 전쟁에나가서 업스므로 요즈음에는 남자대신 여급이 등장하엿다.

그전 제일차 대전당시에도 여급은 대탕적으로 나와잇것이나 그때는 독일부인들이 피난해온 독일부인들이 태반이엇던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일부인은 물래야 볼수업고 고급의 여손님에게 대한영을 밧고 잇다.

東鄕畫伯個人展 八日부터三越서

동경 양화단에서 귀재라는 별명을 듯고잇는 사개의권위 동향청아(東鄕靑兒)화백는오는 팔일부터 사흘동안 시내삼월(三越)『데파ー트』에서 개인전을개최하기로 되엇다한다.

「카자린·워ー런의復活」

▲「스티븐스」第一回作

『컬럼비아』는『조ー지·스티븐스』와 장기계약을 맺고 그의 제작감독

▲「더ー빈」의風說

『유니버살』의 보물『디아나·더ー빈』의

轟夕起子 京寶서「에트랙숀」

동경일활(日活)의『스타ー』도도로끼·유끼꼬양은 지난 일 입경하여

이틀동안 시내황금정 경성보총극장(京城寶塚劇場)에서 노래와『째스』로써『에트랙숀』을 열리라한다(사진우도도끼)

綠陰下新人熱戰譜

右上隅風雲轉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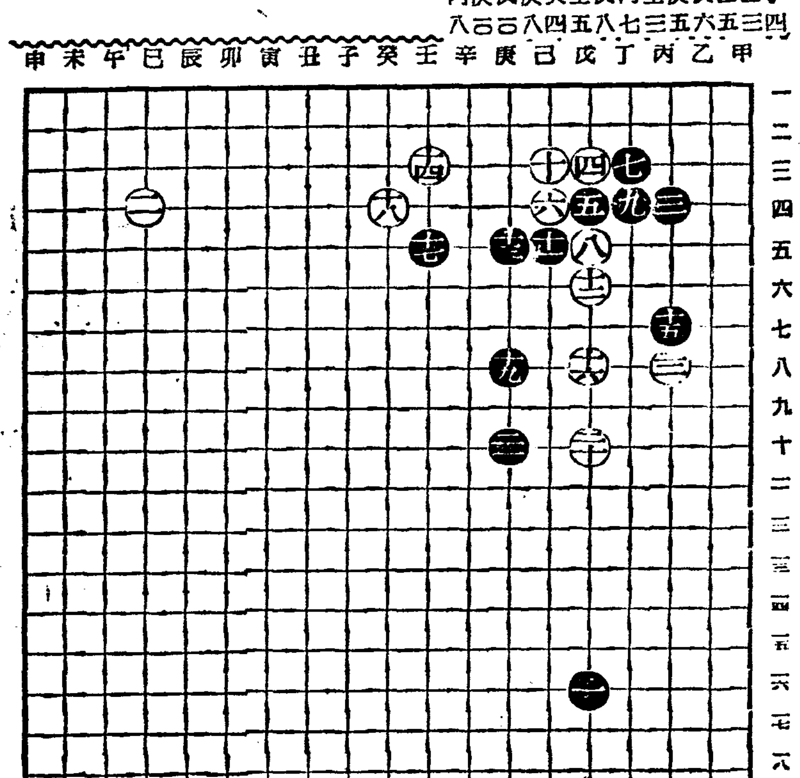
局勢는飄然好調로奏

觀戰記 權乘郁

白 李鉉敏·黑 沈福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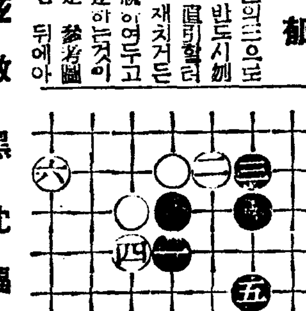
【2】

丁四 己三 己五 戊六 庚五 壬三 丙七 戊八 壬五 癸四 庚八 戊六 庚一〇 丙八



昨譜에 兩軍의 前哨戰도 끝나 듯 順利一夢으로 化하고 말앗다. 黑九는 勿論 어찌할수업는 定則이다. 그러나 白一〇도 此하여는 어찌할수업는 手順인정. 어에 略評한다면 前頁白八이 모든것은 너무 急性이 아닌가.

假定하여 白이 己의三으로 頂키 連하면 黑은 반드시 着하던지 若不然則 直引할러이다. 그 階梯를 따라서 再치게든 乙의三에 먼저 頂觀이 어두고 다시 戊의五로 飄逸하는것이 必要하다. 黑도 原是 參考圖와 가치 進行하엿스면 뒤에아



무리함이 업스리라. 다음 黑은 己의五 白 戊의六은 … 의 風雲이 轉換될 岐路線이다. 黑一三 以降으로 白二〇까지는 새로 難冗端第로 同型逍步하나 尾示白二三는 자리 丙의九가 安置될것도. 從此로局勢는飄然好調로奏하다.

衛生講演 (七日午後一時十五分)

여름에 만흔 病과 그豫防

李義植

여름이 가까워오면 우리들은 안정(?)복안을 느끼게됩니다。 초하에는 온도, 습기등여러가지 조건이 미균의번식에 적당할뿐아니라 우리들이 섭취하는 식물 즉 과실, 채소, 음료수 아이스크림등 이허지안흔건을 먹게되는까닭에자연 이러한미균의 접입을 밧게되는것입니다.

여러가지유행병의 위험성이 만하집니다。 그러나 근래에는위생사상의 일반적보급과 당국의방역에대한 노력의결과도 점차로그수에 큰감소가잇는것은 매우기쁜일이어니와 오히려우리들도 이시기를당하면 적지안은 자

放送 JODK

七日 (金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解說「미나리生치·크림카레이지」日用品時價 ▲正午(東)時報 오늘의가정실정 ▲午後零時五分(東)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여름에흔한病과그豫防」李義植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어린이科學「여름의理科」朴萬奎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支那語講座(一六) 李相殷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東)管絃樂 交響曲第二番D長調 부람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논·트롭포 第二樂章 아다지오논·트롭포 第三樂章 알레그로그라치오소 第四樂章 알레그로콘·스피리ー트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로젠스토크 ▲同八時五〇分 京城放送管絃樂團 金메리 李愛內 朴 ▲同九時二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八日 (土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價 ▲正午(東)時報 오늘의가정실정 ▲午後零時五分(東)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家庭生活과科學」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名作이야기 李石薰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週間行事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風俗道德」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同八時五〇分 唱 京城放送管絃樂團 ▲同九時一〇分 라디오小說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土曜콘서트 ▲同六時(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仙)傳統藝樂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東)드라마 ▲同八時五〇分(新京)大日向村通信 ▲同九時(東)物語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6月7日よりの番組

翼の人人	10·00			
實演	11·55	2·35	5·15	8·00
翼の人人	12·40	3·00	6·00	8·45

(明8日ヨリ「歴史」「翼の人人」同時上映)

京劇

七日ヨリ十四日マデ 上映番組ト時間表

新興京都超大作 女人峠 市川男女之助 國友和歌子

新興東京超特作 或る女

辯護士の告白 美濃まり·小柴幹治

第一回 十一時 第二回 第三回 四時 第四回 七時十分

「大平洋行進曲」「黃金道中」次週封切

大陸劇場

6月7日ヨリ上映時間表

ニユース	10·30		
君若き頃			
涙の責任	12·04	3·33	7·10
ニユース			
君若き頃	1·59	5·23	9·00

若草東寶

6月3日ヨリの上映時間表

男對男	10·30	1·20	4·10	7·10
ニユース	11·45	2·35	5·25	8·30
海軍爆擊隊	11·55	3·45	6·35	8·40

明治座

6月3日ヨリ9日マデ

結婚の價値	11·56	3·26	7·00	
ニユース	10·00	1·30	4·53	8·26
カツスル夫妻	10·19	1·49	5·12	8·46

桃花劇場

六月七日ヨリ十一日マデ 晝夜二回 一時 七時半開映 大衆料金 三十錢均一 各社ニュース 漫畫 高麗映畫社超特作 授業料(綴方敎室) 監督 崔寅奎 主演 鄭燦朝 薄田研二 文藝峰 天才の榮譽總督賞作文映畫化 壓倒的大好評の話題の名畫 ワーナー社超特作 太平洋の翼 ジョージブレント オリヴデハヴィラント ジョンペイン 銃後國民必見の映畫

和信映畫館

六月四日ヨリ九日マデ 上映時間 午前十時半ヨリ午後八時半マデ續映 大日本ニュース パラマウントニュース 音樂映畫 華麗ナルワルツ 科學映畫 地下資源ノ出來ルマデ 科學映畫 スーポツ映畫 水泳日本 極彩色 科學映畫 漫畫 ミッキー

優美館

六月六日より大公開 大衆席 料金二十錢均一 ユ社超特作連續大活劇 大平原猛虎隊 中篇八卷上映 ジョンマックブラウン リンキル·バート 助演 新興キネマ京都大作 振袖若衆 大友柳太郎 高山廣子 主演 新興キネマ東京大作 若き日の凱歌 井上 主演 次週九日より 大平原猛虎隊 最終篇八卷 キートンの頭役 せつなき心

第一劇場

六月六日ヨリ四日間 特選ノ名畫公開 晝夜三回 ユナイト社大巨篇 監督 ジョンフォード 颱風(ハリケーン) 主演 ドロシラムーア ジョンホール 廿世紀フォックス特作 密林の復讐 ワナ·バクスタ グイル·パトリック 東寶映畫 東京ブルース 川田義雄 ミネ·ディック 主演 次週十日ヨリ 歌へ河風 暗黑の支那

新富座

六月七日ー九日 大衆料金 階下 三十錢均一 松竹京都超特作 月形半平太 監督 衣笠貞之助 主演 坂東好太郎 伏見直子 東寶映畫超大作 金語樓の親爺三重奏 監督 小崎政房 主演 柳家金語樓 三映社特別提供 猛獸狩映畫 ジャツガル 監督 ジョンSクラーク 撮影 フロイドPロ クロスビイ